



[뉴스]尹, 부동산 정책 공약 “수도권 1기 신도시 10만호 추가 공급” 02



Economy

코스피	2920.53 (-33.44)	코스닥	980.30 (-29.32)
금리 (미국 3년)	1.985 (+0.072)	환율 (원/달러)	1201.00 (+4.10) (6일)

내부통제 소홀 ‘예견된 참사’... 단독 아닌 공범 가능성

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

2014년 ‘횡령혐의’ 주식거래정지 지난해 8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부감사 인력 22명→11명 급감 유동자산비 현금성 자산 42.8%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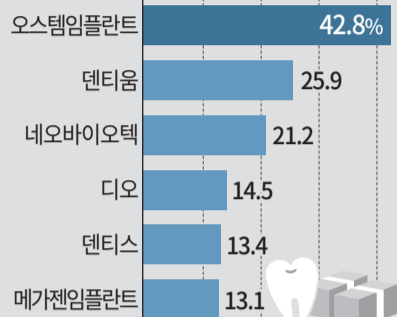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대해 ‘예견된 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품개발, 글로벌 영업망 확장 등을 이유로 영업조직을 대폭 키운 반면, 재무·회계 관리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또 직원 한 명이 단기간에 18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출금한 점, 그만큼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존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단독범행이 아닐 것이라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6일 경찰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으로 알려진 직원 이 모씨가 경기도 파주시의 다세대주택에서 체포됐다. 이 건물은 지난 2016년부터 이 모씨가 소유하다 지난해 말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씨의 가족들은 “독자적 횡령이 아닌 뒷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허점 파악해 범죄 계획”

지난 2014년에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회사 현금성자산비중



*2021년 3분기 기준, 유동자산 대비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 정지를 당한 바 있다. 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회계 문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2014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규옥 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횡령액 9000만원, 배임액 97억원을 이유로 기소됐다.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주고, 중고 치과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 처럼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취한 이득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그는 지난해 3분기 기준 회사의 지분 20.6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해 8월에는 2건의 공시 반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인적분할 형식의 회사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총 2400만원의



CES2022 삼성 ‘비스포크 홈’, 관람객 시선 집중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에 부스를 열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비스포크 홈 전시존을 찾아 다양한 가전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삼성전자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또 내부감사 인력도 2019년 초 22명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11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대주주 때부터 도덕적 해이나 거버넌스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던 회사다. 이런 회사의 허점을 파악해 범

죄를 계획했을 것”이라며 “12월 말 회계법인 감사를 받기 전에 돈을 빼서 쓰다가 결산기간 전에 채워 넣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 공백기를 노린 악질 범행”이라고 말했다.

◆1880억대 횡령, 단독범행 가능한가?

회사 측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닐 것이라 의혹도 나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단기금융상품이 아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자사주 담보대출로 타사에 투자해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보를 보이면서다. <3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대기업, 공정거래법 강화에 체질개선 분주

정몽구·정의선, 글로벌 지분 10% 정리

칼라일에 6100억 규모 매각 정의선 지분율 19.9%로 줄어



정의선 회장은 보유 중인 주식 873만2290 주 가운데 123만2299 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7701 주 전량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 매각 지분은 정몽구 명예회장 6.71%와 정의선 회장 3.29%를 합해 총 10%다. 정의선 회장은 기존 23.29%에서 19.9%로 줄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16만3000원. 정의선 회장이 회수한 주식 매각대금은 2000억원, 정몽구 명예회장은 4100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칼라일은 현대글로벌의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주요 주주는 정의선 회장(19.9%), 덴 노르스케아메리카린제 에이에스(11%), 칼라일(10%), 현대차(4.88%), 현대차정몽구

재단(4.46%) 순으로 변경됐다.

재계는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우군으로 분류되는 칼라일에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2019년 칼라일이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하는 등 이규성 칼라일그룹 대표와 친분을 유지해왔다. 칼라일은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로 한국시장에서 20년 이상 투자활동을 펼쳐온 글로벌 투자회사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11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내 급식에 이어 물리보안(출입관리), 시설관리 등 계열사 사업을 외부에 전격 개장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주요 대기업들도 수익계약 비중을 줄이고, 경쟁입찰 방식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LG와 ‘OLED 동맹’ 청신호”

한중희 삼성부회장 CES 간담회 QD OLED TV 수량 확보하면 전시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에서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장 한중희 부회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OLED 패널 구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이미 이전부터 LG에서 공급 부족이 심할 때 LG에서 패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OLED 패널 역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CES 혁신상을 받고도 QD OLED TV를 전시에서 제외된 이유로는 원하는 수량이 안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수량을 확보하면 소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 부회장은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세트 사업을 DX 부문으로 통합한 이유를 소개했다. 혁신 기술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DX 부문 체제로 더 도약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창출하겠다는 설명이다.

주요 실천 방향으로는 ▲삼성전자의 강점인 광범위한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의 경계 없는 혁신 ▲AI·빅데이터·로봇 등 미래 핵심 기술과 친환경 기술 개발 ▲다양한 분야와의 개방적 협업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과감한 시도 등을 들었다.

올해 DX 부문 주요 사업 방향으로 ▲글로벌 TV 시장에서 초격차 유지 ▲비스포크 가전의 글로벌 확산과 스마트홈 경험 제공 ▲폴더블 성공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시장 리더십과 갤럭시 에코시스템 강화 등을 꼽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 기자 juk@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문대통령, 평택 소방관 순직 애도 “가슴 멘다”
▲김총리 “우리사회 노후 대비 너무 부족...연금 통계 종합 관리” /사진 뉴스스

▲이재명, 평택 소방관 순직에 오후 일정 취소... SNS로 추모
▲“단일화적합도 安 43.5%尹 32.7%... 단일화시 安 41.6%李 33.7%”



▲이준석, 의총 출석·비공개 토론 요구에 “공개·무제한 토론 자신” /사진 뉴스스
▲국회의장 “민생입법 먼저 다룰 것...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